

해남군,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 상수도 사업 박차

누수율27%→15% 단축 제한급수·단수 사전예방

해남군이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을 27%→15%로 줄여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과 녹물해소 및 맑은물 공급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해남군에 따르면 상수도 사업은 총 9개로 총사업비 1227억원(국비 698억원·도비 33억원·군비 485억원·한국수자원공사 11억원)을 투자해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상수도 공급과 노후 상수도

시설물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삼산면 일부와 화산면 전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삼산·화산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41억원을 투자, 현재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했다.

육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위해 관로 매설도 진행 중이다.

총 5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남교도소와 우리종합병원, 농공단지 및 주변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된다.

현산면 15개 마을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했으며 현산면 물복지 확대사업에 76억원을 추가 투자해 연내 준공 예정이다.

육천·계곡 간 광역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에 190억원을 확보했으며 실시

설계 완료 후 발주 및 착공 예정이다.

노후 상수관로를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국비 169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 2020년부터 5년에 걸쳐 해남읍 및 송지면 일원 노후 상수관로 40km를 교체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누수율을 27%에서 15%까지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남군은 환경부 공모에서 해남정수장 현대화 사업이 선정돼 지난해 착공했으며 현재 3차분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2024년까지 진행된다. 해남정수장을 재건해 하루 4000㎥ 생활용수를 해남읍 일부지역과 삼산면, 화산면, 현산면 주민들에게

공급하게 된다.

군은 올 신규사업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해남취수장 개량을 위해 해남군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4억원, 섬지역인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에 18억원을 확보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송지면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은 지난해 8월 완료됐다. 북평~현산~송지 배수지로 연결하는 비상공급망을 구축, 제한급수 및 단수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027년까지 해남군 전역에 광역·지방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으로 군민 물복지를 위해 상수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 무안군, 17일까지 접수

무안군(군수 김산)은 자동차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배출가스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 5등급 경유차량, 도로용 3중 건설기계(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해 제작된 기계)에서 4등급 경유차량(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까지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400대(4등급 50대·5등급 350대)로 차종·차량 연식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를 무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하는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7~17일까지며 군청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거나 온라인(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으로 접수할 수 있다.

김산 무안군수는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지원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 운영 무안군, 12월까지 8개 교실

무안군(군수 김산)은 비문해 성인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3일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일로교실 개강을 시작으로 성인문해교실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과 각 읍면 문해교실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8개 교실(무안읍·일로읍·삼향읍·몽탄면·현경면) 등에서 성인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별로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실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문해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서로 배움을 나누며 소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군에서도 필요한 부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영암군, 과수 전지전정 기술교육



영암군이 지역특화작목인 대봉감과 단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과수(감) 전지전정 교육’을 최근 시행했다.

강의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 조광식 박사가 맡아 전지전정 기초이론과 현장실습을 통해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한 전지전정 기술을 보급했다.

교육은 이론 및 농가포장에서의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교육 수료자는 전지전정기술을 배워 지역 내 올바른 전지전정기술 보급의 전도자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이병영 기자**

목포시, 수돗물 절약 캠페인

목포시가 물 절약 수용가 요금 감면을 시행, 가뭄 극복을 위한 수돗물 절약참여 캠페인에 나섰다.

6일 목포시에 따르면 가뭄 극복을 위한 물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고 물 절약한 수용가에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현재 목포시의 상수원인 주암댐 저수율은 지난 3일 기준 20.6% 정도로 200일 이상 가뭄이 지속되는 ‘심각 단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가뭄이 지속 될 경우 제한 급수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가뭄극복을 위해 지난 3일 목포종합버스터미널에서 상동행정복지센터 주변까지 가뭄 캠페인을 진행하며 생활 속 물 절약 20% 실천을 독려했다.

물 절약 수용가에 요금 감면 혜택을 주는 시책을 추진한다.

3월 중 ‘목포시 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수돗물 사용량에 대한 4월 수도 요금부터 한시적으로 요금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율은 전년 동월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10%의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계획이다.

단, 당월 사용량이 0이거나 이사 정산, 옥내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과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이 물 절약을 실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진도 바닷길 포토 에세이 공모전 13일 마감·23일 발표

진도군은 ‘소망과 기적’을 주제로 하는 진도 바닷길 소망 포토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내가 바라거나 이뤄진 소망과 기적에 얽힌 이야기를 원고와 사진에 담아 응모하면 된다.

공모작은 13일까지 이메일(booksan25@naver.com)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1명)에 진도개 또는 50만원 상당의 특산품, 최우수상(1명)은 20만원 상당의 진도돌미역, 우수상(3명)은 10만원 상당의 진도잡장김 등 우수 특산품이 주어진다.

응모는 내·외국인 모두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작품은 책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진도=백재현 기자**



목포시가 가뭄 극복을 위해 수돗물 절약 참여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여성농업인 김윤희 대표, 유자농사로 융복합농업 도전

유자차 등 연 2억원 매출

완도에서 2대째 유기농 유자 농사를 지으면서 고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여성 농업인이 화제다.

김윤희(47) 섬바다식품 대표는 어린 이집 교사로 재직하면서 부남의 유자농사를 돕다가 2012년부터 유자 농사에 뛰어들어 생산한 유기농 유자차, 파우치 음료 등으로 연간 2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김 대표는 유자를 가공할 때 껍질과 과육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다.

실생목에 순수 토종 유자를 접목해 쓴 맛이 적고 과즙이 풍부하며 유자 향이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여성농업인 김윤희 대표

유자는 가시가 많아 열매수기가 어렵고 열매가 많이 달리면 해거리, 동해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열매 수 조절과 나무

세력 관리가 어려운 작목이다.

김 대표는 9~10월 청유자를 수확해 열매숙기를 대체함으로써 유자의 품질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일반 제품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대표는 “유자를 활용한 융복합농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수제 가공식품 농가의 롤 모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운섭 전남도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장은 “경영규모 확장이 어려운 중소규모 농가들이 농업소득에만 의존하면 지속농업이 어려워진다”며 “가공·체험·관광과 연계한 융복합농업을 통해 농의소득 증대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역량을 갖춘 농가 지원을 통해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백간재 기자**

완도군, 주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확대

자전거 사고 등 추가 27개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올해부터 주민 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 6일 밝혔다.

기존 보장 항목으로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팽소니, 무보험 차 사고 △강력·폭력범죄 △가스 사고 △개 물림 사고 △급성 감염병 등이었

다. 올해 추가된 항목은 사회재난 사망과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사망·후유 장애·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사망·후유 장애),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비용 등이다. 올해부터 7개 항목이 추가돼 27개 항목에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군민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

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가입 비용은 완도군에서 전액 부담한다.

15세 미만은 상법 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NH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청구하면 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최경철 기자**